박광호 의원이 경주 도심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안하는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상임위별 조례안 등 심사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경주시의회(의장 윤병길)는 18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1일부터 8일간 열린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했다.

박광호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관광업계 종사자 등 지역민과 아픔을 함께하며 예상치 못한 재난을 통해 먼저 대비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경주시 도심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안하는 5분 발언을 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가결 됐고, 경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했다.

본회의 산회 직후 윤병길 의장을 포함한 전체 의원은 지난 14일 화재가 발생한 강동 다산폐기물처리업체를 방문해 연일 진화작업으로 고생이 많은 소방관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한우기자 hwlee9919@

경주 동궁원 'NO 코로나19' 발열체크·소독 등 방역 만전

경주시 동궁원은 코로나19 확산 대비 및 동궁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열감지기 설치와 식물원 전체 시설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동궁원은 2019년 41만 3,000여 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한 다중이용시설로 동궁원을 방문하는 모든 관람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주증상인 발열을 체크해 이상 징후자에 대해서는 지침에 따라 현장에서 조치하고 있다.

또 식물전문 교육과정인 12기 식물아카데미 개강을 앞두고 동궁원 본관, 2·3·4관 및 화장실, 교육장, 휠체어, 유모차까지 대대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해 코로나19 예방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한우기자 hwlee9919@

경주시, 2021년도 국비 확보 박차

신규발굴사업 27건 2조 7296억 중 내년 1092억원 우선 배정 전략 수립 계속사업 56건 3548억도 설득 집중

경주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18일 경주시청 알천홀에서 실무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영석 부시장 주재로 2021년 국가투자예산 건의사업 83개 4,640억 원 규모의 국비 확보 계획 설명 및 신규 사업 발굴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고된 2021년도 신규 발굴 사업은 △반도체 대기방사선 시험 플랫폼 구축 사업 1,300억 원 △자동차용 탄소소재·부품 리싸이클링 기반구축 사업 146억 원 △현곡 소현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150억 원 △양남~감포 국도 4차로 확장 1,886억 원 △혁신원자력연구개발 기반조성 사업의 국비 3,744억 원 등 총 27건 총사업비 2조7,296억 원에 달한다.

경주시는 이 가운데 내년 필요 사업비 1,092억 원 확보를 목표로 연초부터 논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계속사업으로는 △지난해 국회 통과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 신규코드 부여 및 8개 핵심사업(월성 외 7) 9,450억 원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기반구축사업 300억 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포항~울산) 2조6,667억 원 △영천~신경주 복선전철화 5,569억 원 △농소~외동 국도 4차로 건설 1,699억 원 등 총 56건 국비 3,548억 원 확보가 목표다.

경주시는 시정전략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발굴, 공모사업,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 혁신성장 투자사업 발굴에 지속 노력을 강구하고, 주요 투자사업 누락방지 등 사업별 추진 전략을 부서 간 공유·점검하는 동시에 계속해서 문제점이 있는 경우 대책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기로 했다.

이영석 부시장은 "지난해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는 증가했으나 장기적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사태로 관광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 투자예산 확보가 절실하다"며 "정부정책 방향과 중앙부처 역점사업을 면밀히 파악해 철저한 자료 수집과 논리 개발 등 세밀한 계획으로 설득하는 것만이 국고를 확보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해 국비사업 확보를 위해 주낙영 시장의 한발 앞선 중앙부처 방문과 면담 등 총력을 기울인 결과 △농소~외동 국도 4차로 건설 실시설계비 확보(25억 원) △양남~감포 국도 2차로 건설 사업비(4억 원) △안강 검단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20억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국비 7,405억 원을 확보해 2019년 대비 18.5% 증액하는 쾌거를 일궈냈다.

경주시 관계자는 "3월 중 경주시장이 직접 내년도 국비 확보사업에 대한 전략보고회를 개최하고 중앙부처를 집중 방문, 십벌지목 수적천석(十伐之木 水滴穿石) 자세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한우기자 hwlee9919@

포항북부소방서, 미리알리오 명예119요원 위촉 포항북부소방서(서장 윤영돈)는 18일 포항우체국, 정다운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미리알리오 명예119요원위촉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규칙, 실질적 피해 구제방안 담아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강조 "복구사업 등 주민 뜻 적극 수렴" 진상조사위 시민대변자 포함도

국회입법조사처는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라는 제목으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발생에 따른 피해와 복구 현황, 2019년 3월 20일 정부조사연구단의 촉발지진 발표, 2019년 12월 31일 공포된 포항지진특별법 경위에 대해 상세히 다뤘다.

보고서에는 지진 피해에 대한 지원 및 복구를 위해서 포항시와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하위법령이 마련돼야 함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피해지역의 복구·부흥사업을 선정해야 하고, 대형재난을 대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요한 과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행령을,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은 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포항시와 피해주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담아야 함을 꼽았다.

특히 지진 피해 보상에 대한 포항시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담아야 하며, 진상조사와 피해 구제 과정·결과에 대한 시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두 위원회에 피해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포함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진피해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을 주택재건 사업으로 보고, 신속 복구 및 부흥을 위해 주민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복구·부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한우기자 hwlee9919@

포스코케미칼, 포항에 2500억 투자

블루밸리산단 부지 127억에 매입 내년까지 이차전지 생산시설 신설

포스코케미칼은 지난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포항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이차전지 음극재(인조흑연) 공장 부지 7만8,585㎡를 127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부지 매입은 지난 12월 경상북도·포항시와 포스코케미칼 간 이차전지 음극재 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포스코케미칼의 공식적인 포항 투자 행보다.

포스코케미칼은 이번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블루밸리국가산단에 2,500억 원을 투자해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는 중국·일본 등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인조흑연 음극재를 국내에서 생산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시장 점유율 상승 및 소재의 국산화율 증가에 따른 수입 대체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역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이차전지 배터리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채용을 통해 고용시장 활성화 및 전입에 따른 인구 증가도 전망된다.

이에 포항시는 에코프로비엠 양극재 공장에 이은 포스코케미칼 음극재 공장 설립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됨에 따라 '제2의 반도체'라고 불리는 이차전지 배터리 핵심 소재 생산 체계가 형성돼 이차전지 배터리 중심도시로서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한우기자 hwlee9919@

포항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전략 모색

정부 공모사업 등 점검 보고회 간부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도

포항시는 지난 17일 국가 예산의 효율적 확보 전략 마련을 위해 2021년도 국비 확보 점검 보고회를 개최하고,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보고회는 송경창 부시장을 주재로 각 부서장 등 70명이 참석해 시민 삶을 윤택하게 하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국가사업 예산 확보 필요성과 추진 상황 등을 보고하고 논의했다.

특히 국가 투자예산 사업이 지역 배분방식에서 자율경쟁방식의 공모사업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맞서 생활SOC 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 시민 체감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공모사업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인 관리 대응 계획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날 국비 확보 점검 보고회에 앞서 여흥구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전문위원을 강사로 초빙해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및 개편 내용을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하고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이한우기자 hwlee9919@

포스코, UCC로 베테랑 직무 노하우 전수

사내 이러닝 사이트 포스튜브 구축 기술·품질·안전 등 콘텐츠 다양

포스코가 베테랑 직원들이 보유한 현장 기술을 짧은 동영상을 통해 전수할 수 있는 지식 공유 플랫폼인 포스튜브(POSTube, POSCO+You Tube)를 새로 구축했다.

지난 17일부터 사내 이러닝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포스튜브는 직원이 직접 직무 노하우 영상을 올리고 공유할 수 있도록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User Created Contents) 방식으로 운영된다.

콘텐츠 종류도 다양하다. 기술·품질뿐 아니라 안전·정비 등 다양한 테마로 직원들이 10분 이내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고 직원간 이를 공유하면서 상호 학습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했다.

현장 베테랑 직원과 저근속 신입 직원이 상호 협업해 현장 기술 노하우를 알려주면 이를 촬영해 올릴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동기 부여를 위해 제작 후 영상을 등록하면 포스코 명장으로 성장하는 제도인 TL(Technical Level) 인증 요건도 일부 인정하는 등 혜택을 준다.

포스코는 포스튜브 운영으로 현장 고근속 직원 직무 노하우가 더욱 체계적으로 전수될 것으로 기대한다.

포항제철소의 경우 향후 5년간 2,000여명의 직원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어 포스튜브를 활용한 업무 지식의 전승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안전 콘텐츠를 통해 안전 최우선 문화를 확산, 안전 경쟁력을 강화하고 임직원 개개인의 안전 마인드를 함양한다는 방침이다.

이한우기자 hwlee9919@

울산공업고등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와 회장 이·취임식 행사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취소합니다!

저희 울산공업고등학교 총동창회가 오는 23일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정기총회와 총동창회장 이·취임식 행사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우려해 취소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최근 국내에서도 많은 감염자를 양산하고 있고, 아직 울산지역에서는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바이러스 확산을 염려하는 지자체와 동문들의 염려를 수용해 부득이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취임식은 취소되었지만, 저희 울산공업고등학교 총동창회 제38대 집행부는 3만5천여 동문의 결사체로서 성실한 자세로 임기를 시작하오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산공업고등학교 총동창회 제38대 집행부 회 장 이순걸(38회)
수석부회장 정상열(38회)
사 무 총 장 안종진(41회) 드림